

들끓는 광주 “더이상 5·18 모독 용납 못해”

5월단체, 지만원·한국당 범국민 투쟁 전개
참여 의원 제명·민주단체 연대해 국민청원
오늘 역사왜곡대책위 소집... 대응방안 논의

한국당 공청회 방청기 ▶3면

재판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난 '5·18 북한특수군 침투설'을 다시 들고 나온 지만원씨가 이번엔 제대로 혼쭐이 날 태세다.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공청회가 광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지씨와 문제 발언을 한 한국당 이 의원과 김순례 의원에 대한 법적 고발과 제명 요구가 잇따르는 등 한국당 전체가 뒤 흔들릴 정도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광주지역 37개 시민사회단체는 11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5월 단체와 광주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한국당 국회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등 전국민적 퇴출 운동을 펼쳐 가겠다"며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은 이들을 제명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한국당 해당 의원들을 징계하고 5·18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5·18 왜곡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2일 오전 광주시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민·관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만원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만큼 전국 각지의 민주화운동 세력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역사왜곡대책위에는 광주시장, 시교육감, 광주 시민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하고 있다.

5·18 왜곡 근절 운동에는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대구 2·28기념사업회, 노근리 기념사업회, 제주4·3 기념사업회, 춘천 5·18 동지회 등 전국 각지의 민주화 운동 단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 춘천에서는 12일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규탄 성명이 예고돼 있다.

앞서 광주 5·18 유공자들은 이날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3일부터는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상경투쟁에서는 한국당 당사를 항의방문해 공청회에서 망언을 한 국회의원 세 명에 대한 출당 조치와 함께 공식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언을 규탄하고 국회차원에서 의정 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5월단체 등은 이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한국당 국회의원 제명 및 의원직 박탈,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가칭 5·18 처벌법) 제정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만원과 망언을 일삼은 국회의원 세 명에 대한 법적 처벌을 위해 고소·고발도 준비 중이다.

광주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했던 지씨는 이미 당사자들에 의해 고소돼 현재 명예훼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진태 상임이사는 "대법원과 국방부에서 조작 근거가 없다는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한 지씨와 자유한국당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5·18 왜곡 세력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기 위해 전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 제작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D-150일을 맞아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제작식이 1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이용섭 광주시장(대회조직위원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홍보대사 박태환 선수,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제작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李 총리 “北 선수단 광주수영대회 참가해달라”

150일 앞두고 범국민 홍보... '수리&달이' 조형물 제작

오는 7월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홍보 활동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역에서 대회 마스코트인 '수리&달이' 조형물 제작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리와 달이가 마침내 광주를 벗어나 서울에 왔다"며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온 세계 수영의 달인들을 모두 모아서 술술 잘 치러지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에 대회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이 총리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공연단을 보내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 대회

슬로건처럼 평화의 물결 속으로 모두 빠져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서처럼 일부 종목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꾸려 출전했으면 한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이 총리는 "19일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열어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방

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은 "이번 수영대회는 대한민국의 위상,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알리는 절호의 대회가 될 것이다"며 "대회의 성공조건은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국민적 관심이다. 정부와 정치권, 온 국민이 사랑과 애정을 갖고 대회 성공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국악인 오정해씨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수영대회 홍보대사인 박태환 선수의 현상판 사인회, 축하공연, 수영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조형물 제작과 수영대회 입장권 및 마스코트 인형 구매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문 대통령 “권태오·이동욱 자격 미달”

한국당에 '5·18 조사위원' 재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규명위)' 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고,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5·18 진상규명위는 한국당의

재추천과 청와대 인사검증, 대통령 임명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 공식 출범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고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법 특별법 자격요건에 두 후보는 해당되지 않아 대통령이 한국당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면 서 "차기환(전 수원지법 판사)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하며, 5·18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드린

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변인은 5·18 유공자들에게 '괴물집단'이라고 해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5·18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법리적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며 "5·18 당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에 대해 이미 법적 심판을 내렸다. 5·18 희생자는 이미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2면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 연다
 - ▶4면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 ▶6면 담양농협, 3억 상품권 지급 논란
 - ▶7면 남북교육 교류사업 시동
 - ▶13면 지역민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는
- 가장 빠른 광주 뉴스 사랑방 뉴스룸
http://news.sarangbang.com

3·1절 100주년기념

기자체험단 모집

무등일보는 3·1운동 100주년의 뜻 깊은 해를 맞아, 청소년들에게 3·1운동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역사 현장을 전문가와 동행, 직접 취재·제작하는 기자체험단을 모집합니다.

기간 2019년 2월 21일(목) - 22일(금)

모집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및 중학생

모집인원 100명(선착순 마감)

일정 3·1운동 주요 유적지 및 기념관 등 견학 후 취재·기사·신문 편집

특이사항 숙박, 간식, 기자수첩 등 일체 제공

문의 062-606-7733 (무등일보 사업팀)

※ 위 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당장 독립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나 저래의 가슴에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만세를 불러야 하겠오"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이 3·1독립선언을 앞두고 천도교 건부들에게 다짐한 말